

국내 일반기계부품산업의 경쟁력 분석 및 발전전략

정만태 | 산업연구원

1. 서론

일반기계부품산업은 일반기계 뿐만 아니라 정밀기계, 수송기계 등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자본재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 기반의 핵심 요소가 되는 산업이다. 그간 다양한 국산화 정책(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시책, 자본재 산업 육성대책, 2001년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육성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일반기계부품산업은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설계기술 및 정밀가공기술의 미비, 제품 및 기업 신뢰성 열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구도가 점점 첨단부품관련 기술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부품관련 기술의 확보가 우리 산업의 지속성장의 관건이 되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일반기계부품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고에서는 국내 일반기계부품산업의 현 위상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전략을 제시해 본다.

2. 국내 일반기계부품산업의 현 위상

일반기계부품산업의 생산증가율은 2000~2004년 기간동안 연평균 9%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품소재산업 전체에서의 비중은 8.5%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정부의 다양한 기계류부품 지원정책 및 관련업체들의 지속적인 국산화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일반기계부품산업의 주요 업종별 생산비중을 보면, 2003년말 기준 냉동공조기계부품이 4조 7,780억원으로 일반기계부품전체의 20.9%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금형이 4조 1,130억원으로 18.0%, 펌프 및 압축기 12.7%, 내연기관 및 터빈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부품소재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보면 2000년 7.8%에서 2004년 9.2%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기능 핵심부품류에 대한 일본 등 선진권으로부터의 수입과 함께 중국을 중심으로 후발개도국들의 범용 기계류 부품 및 소재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기계부품 내에서 주요 품목별 수입을 보면 수입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펌프 및 압축기로 17억 1,410만 달러, 그 다음으로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11억 4,980만 달러, 탭, 밸브 및 유사장치 10억 1,9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별 수입비중을 보면 2004년 기준 일본으로 수입 비중이 일반기계전체의 30%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25.6%, 독일 13.4%, 중국 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부품소재전체에서 일반기계부품산업의 위상 추이

단위 : 10억원, 백만 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증가율 ('00 ~ '04)
생산	일반기계부품(A)	18,242	19,096	20,176	22,882	25,745	9.0
	부품소재전체(B)	214,251	217,741	243,312	270,773	311,930	9.8
	A/B	8.5	8.7	8.3	8.5	8.3	-
수입	일반기계부품(A)	5,538	4,937	5,653	6,716	8,539	11.4
	부품소재전체(B)	70,565	59,248	64,920	75,843	92,664	7.0
	A/B	7.8	8.3	8.7	8.9	9.2	-
수출	일반기계부품(A)	3,970	4,044	4,298	5,424	6,860	14.7
	부품소재전체(B)	79,904	61,975	67,809	82,010	107,871	7.8
	A/B	5.0	6.5	6.3	6.6	6.4	-

자료 : 산업자원부, 「부품소재통계 DB」 이용하여 재구성

주 : 2004년 생산은 추정치임.

표 2. 일반기계부품산업의 주요 품목별 생산비중 추이

단위 : 10억원, %

		2000		2001		2002		200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주요 일반 기계 부품	내연기관 및 터빈	2,091	11.46	2,332	12.22	2,793	13.84	2,347	10.3
	펌프 및 압축기	2,094	11.48	2,208	11.56	2,549	12.64	2,911	12.7
	탭, 밸브 및 유사장치	1,688	9.25	1,822	9.54	1,832	9.08	1,916	8.4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1,530	8.39	1,492	7.82	1,616	8.01	1,962	8.6
	산업용오븐 및 노용부품	115	0.63	84	0.44	99	0.49	112	0.5
	운반하역기계부품	316	1.73	292	1.53	466	2.31	575	2.5
	냉동공조기계부품	3,658	20.05	4,244	22.23	3,258	16.15	4,778	20.9
	가공공작기계부품	433	2.38	421	2.20	400	1.98	434	1.9
	농업용기계부품	369	2.02	249	1.31	229	1.14	231	10.1
	주조,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	181	0.99	157	0.83	142	0.71	133	0.6
건설광산기계부품	586	3.21	584	3.06	727	3.61	993	4.3	
섬유기계부품	227	1.25	197	1.03	220	1.09	188	0.8	
금형	2,901	15.91	3,188	16.70	3,720	18.44	4,113	18.0	
기타일반기계부품	2,049	11.23	1,820	9.53	2,119	10.50	2,189	9.6	
합 계		18,242	100	19,096	100	20,176	100	22,882	100

수출은 비교적 대외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금형부문의 수출 지속, 개방형 통상국가로의 전환에 따른 대외교역 증가, 국내관련업체들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에 힘입어 2000~2004년 기간동안 연평균 14.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일반기계부품 수출규모는 2004년 기준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국별 수출비중을 보면 2004년 기준 대 중국 수출 비중이 일반기계전체의 23.1%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15.1%, 일본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일반기계부품산업의 경쟁력 분석

3.1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경쟁력 평가

무역상대국의 경쟁력은 일반적으로 무역특화지수에 의해 분석할 수 있다. 무역특화지수는 「(수출-수입)/(수출+수입)」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무역특화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제품임을 나타내며, -1에 가까우면 수입특화제품으로써 대외의존도가 심함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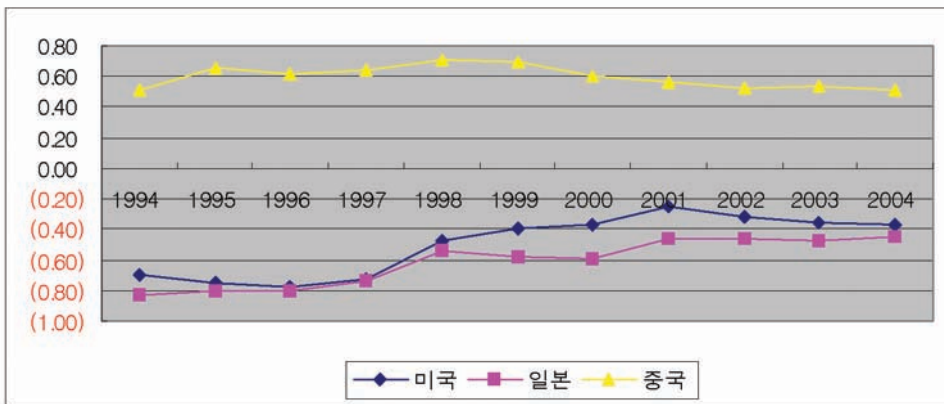


그림 1. 대 미국, 일본, 중국의 일반기계부품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먼저 일반기계부품산업 전체의 대 미국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수입특화지수가 개선되고 있었으나 2001년 기점으로 수입특화가 다소 심화되고 있다. 대 일본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1994~2004년 기간 동안 대 미국보다 마이너스 지수가 더 크게 나타나 수입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추이는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중국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대 미국, 대 일본과는 달리 한국 일반기계부품의 수출특화가 상당 수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기계부품산업 내에서 주요 업종별 대 미국 무역특화 추이를 보면 농업기계부품, 건설광산기계부품, 섬유기계부품은 수출특화제품이나, 이를 제외한 다른 부품은 수입특화제품으로 대외의존도가 심한 편이다. 산업용 오븐 및 노용부품,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부품의 경우 2003년 무역특화지수가 -0.90에 달해 있어 수입특화 정도가 심한 품목이다. 대 일본 무역특화 추이를 보면 농업기계부품, 건설광산기계부품만이 수출특화제품을 유지하고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은 수입특화품목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농업기계부품 및 건설기계부

표 3. 일반기계부품산업내 주요 업종별, 주요국별 무역특화 추이

구 분	대 미국		대 일본		대 중국	
	2000년	2003년	2000년	2003년	2000년	2003년
일반기계부품	-0.38	-0.35	-0.60	-0.48	0.60	0.54
내연기관 및 터빈	-0.48	-0.71	-0.80	-0.76	0.31	0.87
펌프 및 압축기	-0.23	-0.33	-0.81	-0.74	0.62	0.59
탭, 밸브 및 유사장치	-0.26	-0.16	-0.77	-0.56	0.00	-0.25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0.30	-0.06	-0.83	-0.67	-0.47	-0.30
산업용오븐 및 노용부품	-0.87	-0.91	-0.87	-0.80	0.80	0.21
운반하역기계부품	-0.33	0.01	-0.16	-0.03	0.73	0.64
냉동공조기계부품	-0.79	-0.40	-0.75	-0.69	0.66	0.59
가공공작기계부품	-0.73	-0.37	-0.60	-0.58	0.31	0.53
농업용기계부품	0.10	0.41	0.40	0.57	0.65	0.62
주조,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	0.32	-0.32	-0.78	-0.61	0.73	0.81
건설광산기계부품	0.36	0.72	0.75	0.65	0.99	0.95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부품	-0.94	-0.62	-0.55	-0.32	0.95	0.18
섬유기계부품	0.07	0.44	-0.61	-0.41	0.66	0.53
기타일반기계부품	-0.41	-0.39	-0.19	-0.10	0.81	0.60

품의 경우 국내 관련기업들의 품질수준, 납기 등의 측면에서 일본업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연기관 및 터빈, 펌프 및 압축기, 산업용 오븐 및 노용부품은 무역특화지수가 2003년 -0.80에 달해 있어 수입특화정도가 심한 품목으로 나타났다.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주조·기타 야금용 기계부품 등은 2000년에는 각각 -0.77, -0.83, -0.78에 달해 수입특화 정도가 심했으나 2003년에는 각각 -0.56, -0.67, -0.61로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 중국 무역특화 추이를 보면 탭·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기어 및 동력전달장치의 경우 중저가품 중심으로 수입특화제품이고, 이를 제외한 모든 부품은 수출특화제품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기계부품의 경우 국내기업의 대중국 현지투자법인의 수요확대에 힘입어 0.99에 달할 정도로 수출특화제품으로 나타났다.

3.2 세계시장점유율에 의한 경쟁력 평가

국내 일반기계부품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을 보면 1996년 1.2%에서 2003년 1.7%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12.8%에서 9.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으며, 중국의 경우 동 기간 1.0%에서 3.3%로 점유율이 급증하였다. 여기서 세계시장점유율 산정은 업종별로 OECD의 총수출에서 각국의 총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리지표로 사용하였다.

표 4. 일반기계부품산업과 타부품·소재산업과의 세계시장점유율 비교

단위 : %

	한국		일본		중국	
	1996	2003	1996	2003	1996	2003
전체	3.9	4.4	15.6	10.5	2.6	6.4
섬유소재	15.7	8.0	10.2	6.3	11.2	17.2
화학소재	2.8	3.4	10.7	7.4	2.4	3.7
고무, 플라스틱소재	4.6	3.8	10.3	8.8	3.4	4.9
비금속소재	1.0	2.3	18.3	13.4	3.2	7.6
1차금속소재	6.9	5.5	11.1	10.0	2.3	3.7
조립금속소재	2.2	2.5	12.89	9.2	2.7	5.6
일반기계부품	1.2	1.7	12.8	9.5	1.0	3.3
컴퓨터부품	1.8	7.1	26.3	11.3	3.8	17.6
전기기계부품	2.0	1.9	17.3	10.6	4.4	8.8
전자부품	7.9	12.0	26.5	16.4	2.3	11.1
정밀기계부품	0.7	1.1	19.3	16.3	2.6	3.8
자동차부품	0.7	1.6	15.1	10.7	0.5	1.8

자료 : 이원복(2005)에서 재인용

3.3 산업연관표에 의한 수입의존도

일반기계부품산업의 생산에 대한 수입의 비중을 산업연관표에 의한 수입의존도와 수입계수를 이용하여 살펴본다. 수입계수는 특정산업의 총산출액에 대한 총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며, 국내 특정산업에서 1단위의 생산을 위한 수입액을 의미한다. 즉 수입계수=(수입액/총산출액)×100 이다.

표 5. 일반기계부품산업의 수입계수 및 수입의존도 추이

단위 : %

		1995년	1998년	2000년
일반기계부품산업	수입계수	48.82	38.42	39.08
	수입의존도	12.4	13	11.1
부품소재산업전체	수입계수	26.06	24.50	25.31
	수입의존도	18.4	22	21.2
제조업 전체	수입계수	20.55	19.57	21.13
	수입의존도	16.9	20.2	19.8

자료 : 서울대학교 기술정책대학원(2004) 재인용

일반기계부품산업의 수입계수는 부품소재산업전체, 제조업의 수입계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일반기계부품산업에서 10억원을 생산하기 위해 4억 8,820만원(1995년), 3억 8,420만원(1998년), 3억 9,080만원(2000년)에 해당하는 수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의존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의존도는 특정산업의 총산출에 대한 수입중간재투입액의 비율이다. 즉, 수입의존도=(수입중간재투입액/총산출액)×100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일반기계부품산업의 수입의존도는 1995년 12.4%에서 2000년 11.1로 낮아지고 있으며, 부품소재산업 전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4 실태조사에 의한 가격경쟁력 평가

산업연구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5년 2월 기준 한국 제품의 평균가격을 100으로 할 때, 일본 경쟁제품은 116, 중국은 75.9로 나타났다. 일본 일반기계부품의 경쟁제품과의 가격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인건비 요인이 35.8%, 품질의 성능 및 디자인 요인이 30.1%, 원부자재 조달 가격 요인 21.9% 등으로 나타났다.

표 6. 일반기계부품의 가격경쟁력 비교

	일 본	한 국	중 국
가격 수준	116.0	100	75.9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2005. 2)

3.5 실태조사에 의한 기술경쟁력 평가

일반기계부품산업의 기술수준을 보면 가공·조립분야는 선진국에 어느 정도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설계 및 시스템기술면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일반기계부품의 기술경쟁력 평가

	일 본	한 국	중 국
설계기술	100	85.9	63.4
신제품개발기술	100	84.3	61.4
신기술응용능력	100	86.5	66.4
생산기술	100	88.4	67.7
총 합	100	87.2	66.0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2005. 2)

핵심부품의 기술부족 및 설계기술의 미비로 인해 제품화 능력부족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품목별로 보면, 동작기계부품의 경우 가공, 조립 중심의 일반기술은 선진국에 접근해 있으나 자동화의 핵심기술인 설계기술, 제어기술 및 핵심부품개발 능력이 주요 선진국 대비 40~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광산기계부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근접한 제품개발능력을 보이고 있으나 유압장비, 엔진, 동력전달장치 등 핵심장비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선진국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부품의 경우 트랙터 트랜스미션과 유압장치, 디젤엔진 등에서 선진국의 약 80%에 근접하는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요소기술은 설계 및 자동제어기술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형기술의 경우 범용 금형분야에서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초정밀금형부분에서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으로 나타났다.

3.6 실태조사에 의한 품질 및 기타 비가격경쟁력 평가

우리 일반기계부품산업의 품질경쟁력은 일본 경쟁제품의 품질경쟁력을 100으로 볼 때, 89.8로 나타났으며, 품질경쟁력 지표 중에서는 정밀도부분이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우리 일반기계부품의 기타 비가격경쟁력인 디자인, 브랜드 인지도, A/S 등에서는 일본 경쟁제품을 100 기준으로 할 때, 각각 88.8, 81.5, 90.1로 나타났다.

표 8. 일반기계부품의 품질 및 비가격경쟁력 평가

	세부 지표	일 본	한 국	중 국
품 질 수 준	불량률	100	89.2	65.5
	감성품질	100	89.7	66.2
	내구성	100	90.1	65.3
	정밀도	100	89.1	65.3
	종 합	100	89.8	67.2
비가격 경쟁력	디자인	100	88.8	71.5
	브랜드 인지도	100	81.5	63.5
	원재료 부품확보 용이성	100	83.6	74.1
	A/S 및 납기	100	90.4	69.2
	전 체	100	88.1	70.8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2005. 2)

4. 일반기계부품산업의 발전전략

4.1 일반기계부품산업의 과제

국내 일반기계부품산업은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1980~90년대 수입선다변화제도,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시책,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2001년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육성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통해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설계기술 및 정밀가공기술의 미비, 제품 및 기업신뢰성 열위, 세계시장동향에 대한 정보획득 능력 취약 등으로 일부업체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소싱이라는 위기와 기회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일반기계부품업체의 문제는 생산업체의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로 인한 기술개발 능력 미흡, 고품질·고부가 제품의 생산력 취약, 신기술 조류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및 브랜드 인지도 저위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일반기계부품산업의 발전과정이 소재→부품→완제품 순으로 점진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거치지 않고 수출지향적인 성장 정책에 따라 조립·가공 위주의 완제품 생산에 치중하여 부품·소재 등의 성장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일반기계부품업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기계부품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생산기업으로의 전환, 기술개발 능력향상과 신기술수요에의 대응,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신뢰성 확보 체계 구축, 모듈화 구축, 소규모 산업클러스터 구축,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반기계부품산업내의 품목별 차별화된 지원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일반기계부품업체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수출산업화에 성공할 경우, 2010년경 세계 부품시장

점유율 7%이상, 수출 순위 5위내의 세계적 부품공급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 일반기계부품산업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일반기계부품산업의 핵심이 될 기술의 융·복합화를 위한 풍부한 IT산업 기반 ●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산업육성의지 ● 경쟁관계에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가격경쟁력 보유 ● 가공·조립기술 강점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부품에 대한 높은 해외의존도 ● 산업구조의 미성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대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주도 ● 지식산업화 기반 미흡 ● 자체기술개발능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연구개발 미흡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자동차, 조선산업의 수출 증대에 따른 국내 수요 확대 ● 거대한 중국시장의 급성장 및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수출 및 투자 기회 확대 ● BRICs 중동 등 수출수요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대만 등 경쟁국들의 강력한 도전에 따른 가격경쟁력 악화 ● 선진국들의 기술장벽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움직임 확대 ● 고급인력들의 기피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 대학생들의 공급 부족 및 해외 유출

4.2 일반기계부품산업의 발전전략

앞에서 논의된 우리 일반기계부품산업의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일반기계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해 본다. 첫째, 세계적인 일반기계부품 메이커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반기계부품업체의 전문화·대형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일반기계부품업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품목에 따라서는 세계적인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대형업체로의 성장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특정규모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세계적 수요에 대응하는 일류기업화한다는 대형화가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세계시장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 정보통신 등의 경쟁력을 일반기계부품산업에 활용하여 메카트로닉스 제품의 새로운 공급기지로 도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메카트로닉스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이를 토대로 CIM, IMS 등 첨단생산시스템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금형, 유공압부품, 베어링류 등의 분야에서 신개념·혁신기술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집중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모듈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일반기계부품산업을 한 단계 업 그레이트 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개별부품 개발과제 보다는 모듈단위별로 통합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듈부품개발에 대한 지원규모와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일반기계부품의 모듈화 성공을 위해서는 모듈별로 소규모 전문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중소부품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기업간 네트워크를 확산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영세한 규모의 2, 3차 부품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부품의 효율적 네트워크 공급구조의 구축은 국내 일반기계부품업체의 생존에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완제품업체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산업클러스터보다는 중소부품업체들이 집적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소규

모 클러스트 또는 공장단위의 집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넷째, 일반기계부품산업에서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장기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근무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인력난 등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바,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일반기계부품기업의 글로벌 수출기업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뢰성 상호 인정 및 신뢰성 보험 등을 적극 확충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국시장의 지속적 확대와 여타 BRICs 등으로의 수출 및 투자선 다변화 전략 등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세계 일반기계부품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이 1996년 1.0%에서 2003년 3.3%로 급격한 증가세를 시현하였다(동 기간 한국은 1.2%에서 1.7% 증가). 여섯째, 일반기계부품산업내 획일적 지원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일반기계부품산업내의 기업들의 역량, 국내의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등 그룹간, 업종간 차이가 점차 분명해지면서 경기 양극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바, 기존의 동일업종내에서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일반기계부품 산업관련 정부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존의 획일적 지원방식에서 기업군과 업종의 성장추이 및 특성에 따라 품목별로 다양한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 참고 문헌

- [1] 김현정,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2005
- [2] 부산테크노파크, 「산업기술혁신단 심포지움 주제발표자료」, 2005
- [3] 산업자원부, 「부품·소재산업동향」, 각년도
- [4] 산업자원부,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 2005
- [5] 서울대학교 기술정책대학원과정, 「부품소재산업의 특성 연구」, 2004
- [6] 이원복, 「부품·소재산업도 중국의 추격 거세」, 산업연구원, 2005
- [7] 정만태, 「일반기계부품산업의 구조변화와 경쟁력 분석」, 산자부 부품·소재산업동향, 2005



정 만 태

·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 연구위원
· 관심분야 : 기계산업 산업기술, 정책분석
· E-mail : mtjeong@kiet.re.kr